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3년 2월 5일
제1934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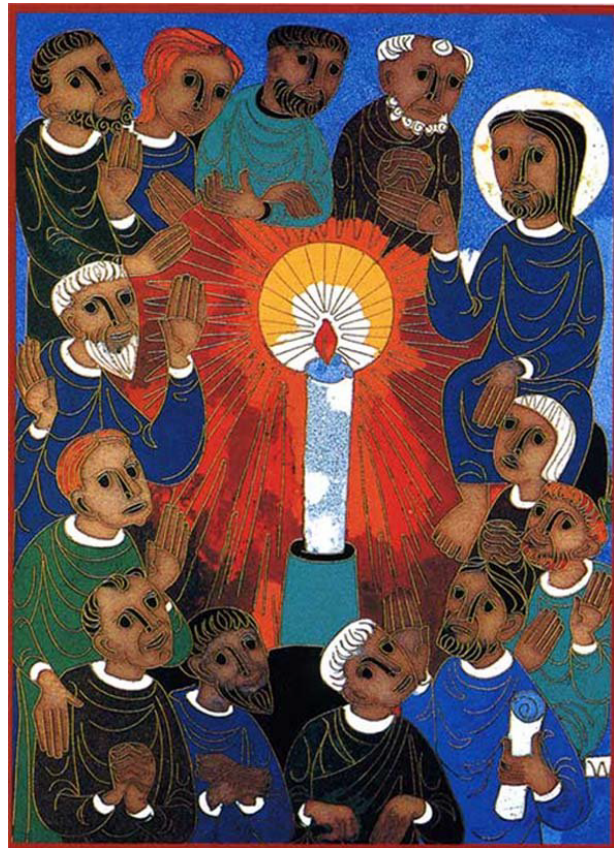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나니”(루카 1,46-47)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마태 5,14.16)



에기노 바이너트 작

연중 제5주일 (가해)

제 1 독 서 이사 58,7-10 |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리라.

화 답 송 시편 112(111) |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제 2 독 서 1코린 2,1-5 | 나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하였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 음 마태 5,13-16 |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15 등불은 켜서 함지 속에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16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바오로 말 콘텐츠

✠복음 묵상

우리 믿음의 정도를 가늠하고 재어 볼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일까요?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 수를 통계 내어 가늠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여러 성사들에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수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복음에 따르면 우리 믿음의 정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사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 시작 부분으로 행복 선언(마태 5,3-12 참조) 바로 다음의 말씀입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고 전합니다(5,1 참조).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산에서, 성당에서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산을 내려가기가 두렵습니다. 비록 잠깐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에 있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간 바오로 사도는 아테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였는데 그의 말을 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사도 17,32 참조).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맨 처음 코린토에 갔을 때 자신은 약하였으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무척 두렵고 떨렸다고

하였습니다(1코린 2,3 참조). 우리는 예수님께 들은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에서 내려와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신자가 아닌 듯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자의 본분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소금의 비유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세상 안에서 참되게 증언하며 세상을 맛나고 풍요롭게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막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야고 1,27 참조) 나아가 세상의 부조리와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의 인생이 신자의 맛과 본분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청하며 용기를 냅시다.

<정용진 요셉 신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 5,14)

- 프란치스코 교황 -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보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신 빛이지만, 어둠은 여전히
세상과 각 사람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널리 비추며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빛이 나올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착한 행실**” (마태 5,16)에서 빛이 솟아나야 합니다.

제자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타인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고,
각자가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체험하도록 도와줄 때
세상의 빛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빛” 이 됩니다.
편협한 공간을 벗어나 자기 신앙을 살아갈 때, 그리고 편견을
없애고 중상모략을 제거하며 위선과 거짓으로 부패된 상황에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하도록 기여할 때 말입니다.

빛이 되십시오.

하지만 나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에게 다다르기 위한

예수님의 빛의 도구입니다.

비록 우리가 종종 세상에서 죄와 싸움의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예수님은 세상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폭력, 불의,
억압 앞에서 스스로 문을 닫아걸거나, 자기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없습니다. 교회 또한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없고, 복음화와 섬김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성부께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지 말고 세상에 남아있게 하시고,
세상의 영에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청하셨습니다(요한 17,15 참조).
교회는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해
따뜻하고 너그럽게 스스로를 태웁니다.
이것은 세상의 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교회는 보잘것없는 이들과 소외된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역사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계속 이어가도록 부르심 받은,
순례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실을 통해 모든 이에게 하느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람들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이 되도록
거룩한 동정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빕니다.

(2020년 연중 제5주일)

<<https://www.vaticannews.va/>>

알링턴 교구 황금 희년 준비 두 번째 해 기도문

“기뻐하라”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당신을 통하여 말씀이 사람이 되셨나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을 통해 큰 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당신을 복되다 하며
기뻐하나이다.

황금 희년 축제를 준비하며
저희가 당신의 아드님 말씀을 받아들여
하느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며
당신과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당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1 2차 현금 안내

- 이번 주일에는 로마에서 공부하는 한국 평신도 학생들을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는 가톨릭 학생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 구역 임원회의

- 일시 : 2월 5일(일) 오전 11:30 (B-1,2)

3 교육부 생활 세미나

- 일시 : 2월 5일(일) 오전 11:30 (A-1,2)
- 주제 : “실습을 위주로 한 텃밭 가꾸기”
- 강사 : 원응식 요셉 농학박사
(*제주도산 호박/아삭이 고추씨앗, 한국산 백일홍씨앗 무료 배부)

4 유아세례

- 일시 : 2월 11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단체장 회의

- 일시 : 2월 12일(일) 오전 11:30 (A-1,2)

6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2월 12일(일) 오후 12시 (하상관 #4)

7 2023년 학생 건진 성사반 신청

- 대상 : 7학년 이상
- 등록기간 및 장소 : 23년 2월 5일(일) - 2월 26일(일)
(하상관 주일학교 교무실)
- 문의 : 윤정 보일 CCD 교감 (703) 371-3589

8 제5기 성마리아 어머니학교

- 제5기 성마리아 어머니학교에 자매님을 초대합니다.
- 내용 :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 어머니로서의 나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 일시 : 2023년 3월 11일(토) - 12일(일) 1박 2일
 - 장소 : The Northern VA 4H Education Center
(600 4-H Center Dr., Front Royal, VA 22630)
 - 참가대상 : 자녀를 둔 모든 어머니 (40명)
 - 접수기간 : 1월 29일(일) - 2월 19일(일), 친교실
 - 수강료 : 접수 일자별 차등
~ 2월 12일(일) 까지 신청 : \$100
~ 2월 19일(일) 까지 신청 : \$130
~ 2월 28일(화) \$150, 2월 29일(일) 부터 \$180
 - 문의 : 최 아멜라 (703) 470-1220
김 베로니카 (703) 864-1236

교향님의 2월 기도 지향 | 본당들

본당들이 친교를 중심으로 하여 더욱더 신앙과 형제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향한 확대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9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

- 일시 : 2월 22일(수) 오전 10:30 - 십자가의 길, 11시 - 미사, 오후 7:30 - 미사
- 미사 중에 재의 예식이 있습니다.
- 지난해 성지주일에 나누어 드린 성지 가지를 2월 19일(일)까지 본당 입구에 마련된 성지 가지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40 주님 수난 일간의 여정

- ◆ 2월 23일(목)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수난 40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 ◆ 평일 새벽 5:30분에 십자가의 길과 미사가 봉헌되며, 주일 오후 3시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 ◆ 십자가 복사와 초 복사를 해 주실 분들은 입구 게시판 밑에 원하는 요일에 이름을 적어 주세요.

걷기와 고해성사로
영육간 건강을...

2월 6일(월) 오전 10시

성당 뒤편 주차장에서 건강을 지키며 걷는 방법을 정인준(파트리시오) 신부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아울러 오후 3시부터(성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성당에서 고백성사(면담 아님)도 드립니다.

정 신부님께 면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별도 신청해 주세요.

잘 걸으면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고해성사로 영혼을 깨끗이 씻고 영육간 건강하게 사순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2월 1일(수)은 우리 본당 승격 27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27주년 기념 미사와 25주년 역사집인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출판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편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편집장 전영완(루카)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일미사에 주보를 보신 후 자리에 놓아 두지 마시고 꼭 가져가 주세요
- 화장실과 세면장을 우리 것처럼 깨끗하게 사용해 주세요.
- 장소와 물건 사용 후 꼭 원 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 성전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3년 1월 29일(연중 제4주일)

봉헌금	\$ 7,427.00
교무금	\$ 5,190.00
교무금(신용카드)	\$ 1,100.00
감사 현금	\$ 480.00
온라인 봉헌	\$ 2,895.00
합계	\$ 17,092.00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2월 9일(목) 오후 5:00 - 6:00
2월 10일(금) 저녁 8:00 - 9:00
2월 12일(일) 오전 6:00 - 7:00

- 주일 강론
- 특강 :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창조적 반응하기’ (1)
- 김인호 루카 신부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